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어스름 청소부 김혜진 장편소설

주제어: 판타지, 우정, 성장, 정체성

※ 책 소개

주인공 소요네 집안은 대대로 어스름 치우는 일을 해 왔다. 어스름은 곰팡이나 먼지 같아서 방치하면 딱딱하게 굳어 버리는데, 이를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어스름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 구석구석에 영기고 뭉쳐 딱딱해진 어스름을 수거하는 청소부가 된다. 그러나 소요는 어스름이 닿으면 간지럽고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상생활은 물론 친구 사귀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소요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친구는 사람의 ‘얼룩’을 읽어 과거와 성격을 파악할 줄 아는 제하뿐. 그러던 어느 날, 가짜 기억을 담은 스티커를 만드는 예나가 전학을 오면서 소요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 학습 목표

- ① 작품 내용을 정리하며 꼼꼼하게 읽을 수 있다.
- ② 인물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작품을 읽을 수 있다.
- ③ 작품 내용을 고려하여 이어질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다.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초능력 및 히어로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
2	독서 중 활동	1장. 우리는 어스름은 치운다 ~ 2장. 이게 다 어스름 때문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중요 소재 특징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4.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의 상황 추론하기
3		3장. 친구가 되는 법 ~ 4장. 계획되지 않은 여행 1. (사실적 읽기+창의적 읽기) 등장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 등장인물 별명 붙이기 2. (추론적 읽기) 등장인물 추론하기 3. (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위 평가하기 4. (창의적 읽기) 다름에 대해 생각해 보기
4		5장. 계획된 침입 ~ 6장. 매찌와 어스름바치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인물의 생각에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3. (사실적 읽기+창의적 읽기) 매찌의 언어로 소통하기 4.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5		7장. 한밤중 어스름 수거 ~ 8장. 비밀의 일부 1. (사실적 읽기) 주요 소재의 특징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영화와 연계하여 작품 감상하기 4.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6		9장. 어스름, 스티커, 그리고 틈 ~ 10장. 잃어버린 어스름을 찾아서 1.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4. (추론적 읽기) 소설의 구성 파악하기
7		11장. 나만 할 수 있는 일 ~ 12장. 몰랐던, 알게 될 1.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3. (사실적 읽기+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10	독서 후 활동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속편 창작하기

1.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참고 영상: 영화 속 가장 갖고 싶은 초능력 BEST 7
<https://www.youtube.com/watch?v=k77-zWJ05V8>

1-1. 영상에서 소개한 초능력 중 가장 갖고 싶은 능력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2. 영상에서 소개한 능력 외에 여러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소설, 웹툰 등 각종 매체에서 접한 초능력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능력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어스름 청소부》에서는 어떤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할지 제목과 표지 그림을 통해 추측해 봅시다.

1. (사실적 읽기) 빈칸을 채워 등장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이름	특징
김소요	• 중학교 □학년 • 어스름을 청소하는데 그걸 만지면 □□이/가 가렵다.
정제하	• □□을 보는데 그걸 보면 머리가 아프다. • □□ 관리에 힘쓴다.
정다하	• □□을/를 지우는 □와 □□을/를 만든다. 제하와는 □살 차이가 난다.
박서이 주무관	• 구청 공무원 • □□이 넓다 • 이곳에 이사 온 지 □달째이다.

2. (사실적 읽기) 〈보기〉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얼룩’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어스름’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보기〉

박 주무관은 입을 반쯤 벌리고 엄마가 풀어놓는 어스름과 귀신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이 제하는 박 주무관의 얼굴을 꼼꼼하게 살폈다. 내가 보기엔 평범한 수준의 어스름이 붙어 있는 정도였지만, 얼룩을 읽으면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터였다. 얼룩은 그 사람이 겪은 경험과 마음 상태에 따라 특정한 형태와 농도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잊힌 과거와 감춘 비밀까지 얼룩에 스민달까.

- ‘얼룩’의 특징: 얼룩에는 사람의 경험과 비밀, 마음 상태가 반영되므로 얼룩을 읽으면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있다.

• ‘어스름’의 특징

- ①
- ②
- ③

3. (사실적 읽기) 빈칸을 채워 어스름 청소부의 수칙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엉키고 뭉쳐 딱딱해진 어스름은 ().

둘째, 어스름을 뿔 때는 가장 안쪽의 한 겹은 남긴다. 만약 마지막 한 겹이 다 떼어진다면 그만큼을 (). 붙일 수 없다면 즉각 ().

셋째, ()에게 붙은 어스름은 떼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수거한 어스름은 ()에 넣는다. ()의 위치는 바꿀 수 없다.

일곱째, 매립장에 들어간 어스름은 ().

4. (추론적 읽기) 같은 어스름 청소부들조차 소요 가족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지 자유롭게 추측해 봅시다.

“근데 모르는 앤데? 우리끼리 다 아는데……. 맞다, 내가 모르는 애가 딱 하나 있거든? 켜가? 근데 개네 집은 좁…….”

미처 생각을 못했다. 어스름 청소부들을 아예 모르는 곳에선 상관없지만, 이렇게 별난 애들을 모아 놓은 곳에서는 나의 약점이 티가 날 거라는 걸. 같은 어스름 청소부들조차도 꺼림칙해하는 우리 집. 공식적 왕따. 나는 바로 일어나 강당을 나왔다.

[지도 Tip] 아직 소요 가족의 처지에 관한 힌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예나의 능력을 정리해 봅시다.

1-2. (창의적 읽기) 소요, 제하, 예나의 능력을 고려하여 각 인물들에게 별명을 붙여 봅시다.

소요	
제하	예) 얼룩 제거사
예나	

2. (추론적 읽기) 예나의 얼굴에 어스름이 없는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제하 옆에서 허수아비 취급받아도 상관없었다. 내 생각은 온통 전학생에게 꽂혀 있었다. 아이들이 지나가고, 조용해진 복도에서 나는 제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스름이 없어, 하나도!”

어제처럼 심하진 않아도 난 여전히 어스름에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런데도 전학생에겐 어스름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깨끗하니까 무슨 3D 캐릭터를 보는 거 같았다.

“가서 얼굴에 얼룩이 있나 좀 봐 줘.”

제하 눈에 얼룩이 안 보인다면 정말로 어스름이 없는 게 맞을 것이다.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투덜거리던 제하는 우리 반 문 앞에 서서 자기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전학생을 쓱 스캔했다.

“진짜 얼룩도 없네.”

제하가 중얼거렸다.

“그치, 맞지!”

〈중략〉

나는 어스름 하나 없는 예나의 얼굴에 익숙해졌다. 어스름이 유독 잘 보여 머리 아픈 날에도 예나의 맑은 얼굴을 보면 숨통이 트이듯 기분이 나아졌다.

3. (비판적 읽기) <보기1>에서 보이는 엄마의 태도를 고려하여 <보기2>에서 보이는 소요의 행동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보기1>

“너 어디야? 집으로 와. 빨리.”

“어? 아니, 나 지금…….”

“빨리 오라고!”

엄마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도 안 해 주고 다짜고짜? 다시 전화해 봤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다. 일부러 안 받는 게 분명했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다.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고 싶었다. 안 가면, 뭐 와서 끌고 갈 거야? <중략>

“진짜 여기 왜 온 건데? 왜 갑자기 온 건데?”

“몰라도 돼.”

엄마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엄마는 숙소를 찾으려 바빴다. 언제나 나한테는 말해 주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기만 한다. 언제나 엄마 아빠 일은 중요하고, 엄마 아빠의 판단은 옳고, 내 일과 판단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

<보기2>

“너 어디 앉았어? 우리 지금 만화 카페 왔는데 안 보여서. 뭐 먹었어?”

더 이상 숨길 순 없겠군.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나 서울이야.”

“뭐? 뭐!”

경악하는 엄마의 외침이 통쾌했다. 내가 거기 암전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기차 정도는 혼자 탈 수 있다고.

그러나 엄마는 화를 내는 대신 아빠한테 소리쳤다.

“소요 서울이래! 서울 갔대!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해! 해 줘잖아! 김소요! 너 집에 가면 안 돼! 어찌려고 그래! 우리는 서울 못 간단 말이야!”

엄마는 울먹이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해졌다.

“벌써 지하철 났는데……. 친구네 가려고 했는데……. 예나네서 오늘 자도 된다고 해서…….”

엄마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아빠가 전화를 바꿔 받았다. 아빠는 한결 침착하게 예나네 집 위치를 물었다.

“아, 어딘지 알겠다. 언덕 너머 그 아파트구나. 그럼 그 친구 집에만 있는 거다. 밤에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지? 가서 꼭 전화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갈 때까지 우리 집에는 가지 마.”

- 소요의 행동에 (공감한다./공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

4. (창의적 읽기) 다음 <보기>의 소요와 예나의 대화를 통해 ‘이상함’의 기준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보기>

“되게 기생충 같지? 남의 집에서, 남을 숙여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 안 그런데!”

아니라는 말부터 했다. 곧이어 하고 싶은 말이 뒤죽박죽 쏟아져 나왔다.

“넌 너대로 존재하려는 거잖아, 네 방식대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아니, 좀 이상하면 어때? 나도 이상해, 우리 집도 이상하고, 남들 눈엔 보이지도 않는 물질을 치워서 그걸로 월급 받고 사니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어.”

“나야말로 그래. 없는 기억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어.”

예나가 힘없이 말했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사기꾼은 아니지, 우리한테 진짠데. 못 보는 쪽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그 기준은 뭘까. 우리만 안 이상하고 나머지가 다 이상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만큼은 그렇게 우기고 싶었다. 예나는 나를 멀거니 바라보다가 쿡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① 매립장에서 어스름을 가져간 두 사람의 이름은?
- ② 소요가 어스름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매립장 안으로 한 발 디뎠을 때 일어난 일은?
- ③ 정신을 잃은 소요가 정신을 차린 후 제하가 소요에게 한 말은?
- ④ 납치된 예나가 감금되어 있던 곳은?
- ⑤ 예나의 정체는?

2. (비판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밑줄 친 제하의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보기〉

“이번엔 재료에는 손도 안 댔어.”

“그럼 뭘 했는데!”

“……얼룩을 읽었어.”

“그걸로 돈을 받았어? 야, 너, 할머니가 아시면……. 다하 언니가 알면!”

“……규칙을 어기긴 했지. 하지만 배운 것도 많아.”

“야, 남의 얼룩을 읽어서 정보를 캐내는 인간들한테서 뭘 배워?”

나는 미치겠는데, 제하는 도리어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굳이 재료를 훔쳐다 팔지 않아도, 어디서 뭘 주워 오지 않아도, 내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는 걸.”

상당히 비뚤어진 말이지만 나는 제하의 말을 이해했다. 우리 같은 애들은, 보통과 다른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괜찮다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 남들 말고, 스스로에게.

▶ 참고 영상: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plf-sK5pjsY>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사실적 읽기) 다음 용어를 매izzi 언어로 바꿔 봅시다.

- ① 어스름 →
- ② 어스름바치 →
- ③ 어스름 청소부 →

3-2. (사실적 읽기) 빈칸을 채워 매izzi의 언어를 번역해 봅시다.

태어났다, 어스름, 붙었다, 땅거미꾼, 모른다, 찾았다, 모른다, 없었다…….



이 아이는 ()이 계속 몸에 (). (), 그러니까 어스름 청소부들에게 보였지만 왜 어스름이 붙는지는 그들도 ()했다. 어스름과 관계 있는 이들을 ()어스름바치를 만났는데, 어스름바치가 아이에게 종잇조각 같은 것을 붙이자 어스름이 더는 ().

3-3. (창의적 읽기) 3-2를 고려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매izzi의 언어’로 바꾸어 봅시다.

<보기>

매izzi는 몇 가지를 당부했다. 운반될 동안 죽은 듯이 조용히 있을 것. 도착한 후에는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나올 것.

4. (추론적 읽기) ㉠과 ㉡에 대한 답을 추측해 봅시다.

제하는 ‘어르신’이 누군지 알아내려 했지만 풍산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우리 부모님이 너희한테 열쇠를 줬어?”
풍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했던 대로지만 확답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게 정말이라면 나에겐 애를 닦할 자격이 없다.
도둑질이 아니었던 거니까. 어스름을 가져가라고 판을 깔아 줬던 거다. ㉠도대체 왜?

“우, 우린 진짜 조금만 가져가려고 했어. 네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적당히 가져오고 끝났을 텐데…….”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㉞그 어스름은 어쨌어?”

“어? 그, 그건…….”

풍산은 어리바리하면서도 완고했다. 별하를 도와서 그 별인지 임무인지를 완수하기 전에는 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빈칸을 채워 어스름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 ① 사람에게서 떼어 어스름이 길가에서 떼어 어스름보다 ().
- ② 길가에서 떼어 어스름도 ()에서 충분히 삭히면 상태가 좋아진다.
- ③ 예로부터 귀한 물건에 붙여 상태를 ()하기 위해 어스름을 사용했다.

2. (추론적 읽기) 〈보기〉를 참고하여 풍산과 별하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성격을 정리해 봅시다.

〈보기〉

소설에서 인물을 설정하고 성격을 묘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말하기’라고도 칭하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간접 제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보여 주기’라고도 한다.

풍산과 별하의 성격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제시된다.

풍산의 성격은 ~ 왜냐하면 ~

별하의 성격은 ~ 왜냐하면 ~

[지도 Tip]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행동이나 대사를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3.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에서 제시된 장면과 〈보기〉의 대화의 공통점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보기〉

“저 노인은 인지능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대표 자리를 내놓아야 하니까, 딸이 나서서 온갖 수단을 다 썼어. 작년에는 이걸 세 달 동안 대여했었지. 계속 스티커를 붙이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예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수그렸다. 그게 싫었다. 나는 예나를 더 힘껏 끌어안았다.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풍산이 중얼거렸다.

“어르신은 스티커 덕에 사람들이 안정된다고 하시지만, 결국 저렇게 돼. 스티커 없이 못 살게 된다고.”

아이를 잃은 사람에겐 아이가 살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젊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거짓으로 얻은 만족감은 현실과 부딪칠 때마다 더 큰 거짓을 붙여야만 유지될 수 있었다.

▶ 참고 영상: 매트릭스 빨간약 (1999) (4분0초)

<https://www.youtube.com/watch?v=RLjPoxTWhao>

[지도 Tip] 둘은 진실을 외면한 채 마음 편히 살 것인지, 진실을 추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참고 영상만으로 영화의 내용 이해가 어렵다면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은 영화 <매트릭스> 해설 관련 영상을 보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참고 영상: 매트릭스 1편 완전 해석 - 당신이 놓친 세계관과 장면의 진짜 의미

<https://www.youtube.com/watch?v=pyduMPWaYpk>

4.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소요의 부모가 형설에게 어스름을 준 이유는?
- 소요가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가려웠던 이유는?
- 형설이 소요의 얼굴에서 스티커를 떼자 어스름이 소요에게 반응하는 이유는?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진술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체크해 봅시다.

- 제하는 소요를 구하기 위해 형설에게 주먹을 날리다가 손을 다쳤다. (O / X)
- 소요는 차를 마시고 형설이 얼굴의 틈에 넣은 어스름을 토해 냈다. (O / X)
- 예나는 세척될 때면 몇 년 치의 기억이 사라진다. (O / X)
- 안 좋은 기억이 남은 스티커에는 어스름이 빨리 자란다. (O / X)

2.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밑줄 그은 물음에 대한 답을 추측해 봅시다.

〈보기〉

“어, 근데 김소요 얼굴에 붙은 스티커에서는 왜 어스름이 안 자라는 거야? 기억을 안 담아서 그런 건가?”

제하가 물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내 얼굴을 무심코 어루만졌다.

“나도 모르겠어. 소요는 신기해.”

2-2.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그럼 일단 가서 생각하자. 가자”

제하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바로 나오려 했지만 찻집 주인이 말렸다.

“어젯밤부터 낯선 사람들이 누굴 찾는다며 이 근방을 돌아다닌다는구나.”

예나를 손에 넣으려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일까? 주인은 근처 골목 입구까지 택시를 불러 주었다. 찻집 앞 골목은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올 수 없었다. 우리는 가게 안에서 대기하다가 택시가 골목 앞에 도착하

자마자 달려가 차에 올랐다.
그러나 꼬리를 밟히고 말았다.
“거기! 너희! 멈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멈추라면 멈추겠냐! 택시가 출발해서 안심한 것도 잠시뿐이었다. 검은 차 두 대가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제하가 연신 뒤를 돌아보며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
“기사님, 저 차들요, 어떻게 못 따돌려요?”

3. (감상적 읽기) 다음에 <보기>에 제시된 ‘목련꽃 님’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보기>

내가 태어나 열여섯 살이 되도록 죽 살아온,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한 이 작은 동네를 박 주무관은 다른 방식으로 잘 알고 있었다.
“여기 바로 뒷집에 제가 아는 분이 사시거든요? 잠깐만요, 연락 좀 해 볼게요. ……목련꽃 님, 저 지금 택스로 가도 돼요?”
목련꽃 님은 나도 얼굴을 잘 아는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동네 할머니였다. 박 주무관과는 주민 센터 요가 수업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우리는 캠핑용품점 후문으로 나와 목련꽃 할머니 집 대문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담 너머 옆집은 목련꽃 할머니의 노인정 절친 집이었고, 외벽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옆집으로 건너갔더니 그 절친과 같은 고향 사람이 사는 빌라가 나왔다.

[지도 Tip] 만약 소개할 이웃이 없어 진행이 어렵다면, 아래 소개한 영상을 보여 준 후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 발표하는 수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 영상: “이웃은 모두 친구”... 프랑스 이웃의 날
https://www.youtube.com/watch?v=9WBX_errwF8

4. (추론적 읽기) 〈보기〉를 참고할 때 10장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할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형식을 띠고 있다.

발단	사건의 암시	•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인물들의 성격을 알려 줌 • 사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시되거나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남
전개	사건의 발생	•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이 겹겹으로 드러나는 단계
위기	사건의 반전	•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단계 • 사건의 반전이 나타나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함
절정	사건의 전환	• 갈등과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 해결의 전환점이 드러남
결말	사건의 결과	• 이야기의 마무리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빈칸을 채워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선환청은 인적 재해가 발생한 자리나 □□□구역에서 발생한 틈을 막기 위해 □□을/를 만들었다. 형설은 그것을 활용하여 □□□을/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었다. 그것의 한계는 □□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틈을 막았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이/가 붙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으)로 틈을 막기 시작했고 그곳을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2. (사실적 읽기) 예나가 스티커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된 연유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사실적 읽기) 어스름 청소부들이 소요의 가족을 꺼림칙해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모르는 앤데? 우리끼린 다 아는데……. 맞다, 내가 모르는 애가 딱 하나 있거든? 걔가? 근데 개네 집은 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어스름 청소부들을 아예 모르는 곳에선 상관없지만, 이렇게 별난 애들을 모아 놓은 곳에서는 나의 약점이 티가 날 거라는 걸. 같은 어스름 청소부들조차도 꺼림칙해하는 우리 집. 공식적 왕따. 나는 바로 일어나 강당을 나왔다.

3-2. (추론적 읽기)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지금까지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소요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보기〉

“이건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김소요 씨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깊은 틈이 있으며 동시에 어스름을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요. 스티커에 어스름이 붙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지요. 게다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김소요 씨가 어스름과 특이한 교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향력이 생겼달까요. 정확한 것은 앞으로 더 알아봐야 할 텐데요, 김소요 씨가 협조해 준다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위험은 가능성을 뜻하기도 하죠.”

포니테일이 진지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뭐든 해 보고 싶었다. 가능성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삼켰다. 뭐, 명함이 있으니까!

1. 다음 질문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제시된 질문 이외에도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떠올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형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소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 매씨의 아이의 정체는 뭘까?
- 예나의 부모는 누구일까?
- 제하의 누나 다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

2. 다음은 ‘6차시’에서 언급한 소설의 구성 단계와 예시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친구들과 함께 속편의 내용 구성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보기〉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형식을 띠고 있다.

1. 발단

소설의 첫 부분으로, 주인공과 배경이 소개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요 인물과 세계관을 설정하고 갈등의 씨앗을 심는다. 독자는 이 부분에서 사건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2. 전개

갈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사건들이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주인공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인물 간의 관계나 갈등이 깊어진다.

3. 절정

소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주인공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독자의 기대와 긴장이 극대화된다.

4. 위기

절정 이후, 사건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이다. 주인공이 큰 위험에 빠지거나 해결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5. 결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주요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정리된다. 주인공이 변화한 모습으로 새 삶을 시작하거나, 이야기의 여운이 남는 끝맺음이 이루어진다.

발단	사건의 암시	•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인물들의 성격을 알려 줌 • 사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시되거나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남
전개	사건의 발생	•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이 겹쳐져 드러나는 단계
위기	사건의 반전	•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는 단계 • 사건의 반전이 나타나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함
절정	사건의 전환	• 갈등과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 해결의 전환점이 드러남
결말	사건의 결과	• 이야기의 마무리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

예시

발단	한 소년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 온 뒤, 그곳에서 겪을 모험의 서막이 열립니다.
전개	소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그들과 함께 큰 미스터리해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위기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미스터리의 핵심 장소로 가서 큰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절정	소년과 친구들이 악당에게 붙잡히거나, 도망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합니다.
결말	소년과 친구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함께 겪은 일로 인해 더욱 성장합니다.

3. 1과 2를 참고하여 속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발단	
전개	

